



이 자료는 2013년 4월 8일 (조간) 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흑염소 기르기, 건강한 씨염소 선택부터

- 농촌진흥청, 좋은 씨염소 고르기 위한 유의사항 소개 -

- 농촌진흥청(청장 이양호)은 흑염소 사육을 원하는 귀농, 귀촌인의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사육목적에 따른 올바른 씨염소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.
-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길러오던 재래흑염소는 소형종으로 고유의 약리기능에 따라 육류보다는 약용 위주의 건강식품으로 소비가 이뤄져 소규모 부업형태로 사육돼 왔다.
 -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육류위주 소비형태로 바뀌어 사육규모가 커졌다.
 - 사육농가에서는 생산성을 위해 대형 육용종과 교잡을 통해 생산성을 높였지만 짧은 기간에 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교잡종을 만들다보니 현재 순수 재래흑염소는 거의 소멸됐다.
 - 일반 농가에서 사육하는 대부분의 씨염소는 순종 품종의 특징에 따라 계획적으로 교배해 지속적으로 생산능력을 높인 실용 품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난 교배된 교잡종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져 씨염소의 기능을 상실했다. 이에 체계적인 육용 흑염소 생산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.

- 귀농, 귀촌인이 흑염소를 키울 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량 씨염소의 선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.
 - 대부분 농가에서 사육하는 흑염소는 발육능력이나 번식, 비육능력, 혈통 등에 대한 개체기록이 없어 씨염소 구입 시 외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.
 - 그러므로 가능한 품종의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모가 강건하고 활력 있는 씨염소를 선택하고 체장과 체폭이 긴 씨염소를 선택하는 것이 육량 생산성을 높이는데 좋다.
 - 흑염소 구입 시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눈은 총명하게 반짝이고, 눈곱이나 눈물을 흘린 흔적이 있는지, 안검막의 백태가 끼는 현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.
 - 또한 기민하게 행동하고 자세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지 파악하며 되새김과 호흡이 정상적인지, 털이 윤기가 흐르고 반짝이는지, 외부 기생충에 감염돼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.

- 현재 염소는 전국 14,000농가에서 약 24만 8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흑염소를 기르기 위해 씨염소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전국 흑염소전업농협회(대표 김운선, 전화 061-432-6240, 홈페이지 <http://www.goat.or.kr>)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 - 흑염소협회는 각 도에 8개 도지회를 두고 각각 시군구지회로 운영하고 흑염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협회를 활용하면 씨염소 구입과 사육방법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김명직 연구관(☎ 063-620-3530)에게
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